

『鮮英文法』에 나타난 음성학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김형엽
(고려대학교)

I. 들어가기

한국 영토에 영어가 정식 언어로서 소개된 것은 아주 오래 된 것은 아니었다. 구한말 조선이 세계 여러 나라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사이에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영어가 외국어로서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말기 이전에 공식적인 외국어는 대부분 중국어와 일본어였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세계적으로 조선이 한 국가로서 국교관계를 여러 나라와 맺어갈 무렵 외교를 위한 언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특히 종교와 연관되어 영어의 확장이 빠르게 형성되었는데, 기독교의 신속한 확산은 영어 언어권으로부터 많은 선교사의 방문에 계기가 되었다. 초기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 모국어 화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종교의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서양의 신교육을 소개하면서 조선 사람들 사이에 영어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영어를 소개하는 책들을 저술하였고, 여러 사람들이 이 저서들이 읽으면서 영어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조선에 관심을 가진 선교사들의 숫자가 늘면서 이미 조선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외국인들은 조선을 자신들의 국가에 알리는 수단으로 조선의 언어인 한

국어 알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정치 상황과도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정부가 조선에 대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기타 외국인들은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른 국가에 더 많이 알리려 하였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의미에서 한국어를 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Horace Grant Underwood는 조선어와 영어를 비교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韓英文法』을 1890년에 저술하였는데 주로 품사와 문장구조에 중점을 두고 한국어의 문법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최초의 문법서에는 음성학과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상태라서 한국어의 발음에 관한 정보는 전무하였다. 그러나 『韓英文法』을 개정한 『鮮英文法』이 1914년에 『韓英文法』의 아들인 Horace Horton Underwood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초기의 문법서와 개정판의 차이는 나중에 한국어의 음성적 특징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의 내용은 1914년에 발행된 이 저서 내용 중에서 음성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현대 언어학의 음성학과 『鮮英文法』에 제시된 음성학 방법을 비교하고 한국어의 소리를 새롭게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II. 『鮮英文法』에 대하여

1. 내용의 구성

초기의 문법서와 달리 『鮮英文法』에는 문법 내용 이외에 음성학, 특수표기, 편지형식의 소개를 포함하여 세 가지 내용이 부록 형식으로 첨가되었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음성학에 관련된 부분이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a. 朝鮮語音聲學
- b. 朝鮮語와 英語 소리의 對照

다음에서는 위에 제시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자세한 설명을 보일 것이다.

1.1 朝鮮語音聲學

1.1.1 音聲學實驗의 기초 사항

음성학의 시작은 바로 발음에 대한 분석으로부터이다. 『鮮英文法』에 음성학을 첨가한 저자는 우선 발음의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당시의 한국어 발음과 연관된 소리들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1900년대 무렵 한국어는 외부 세계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외국에 널리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영어와 대조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말로 아울러 지적하였다.

이 저서에 제시된 음성학의 방법이 확실히 서양의 음성학적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는 소리의 생성과 관련된 구강 내부의 음성 기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하여 짧은 막대기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우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이 방법은 유럽에서 음성학이 발전할 무렵 많은 학자들이 소리의 생성 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것이었다.

둘째는 한국어 자음의 음성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자음 앞뒤에 ‘아’를 연결하여 발음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방법은 現代言語學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언어의 자음을 분석할 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2) 아가 aŋa	아나 aŋa	아다 aɰa
아타 aɛa	아파 aɸa	아하 aħ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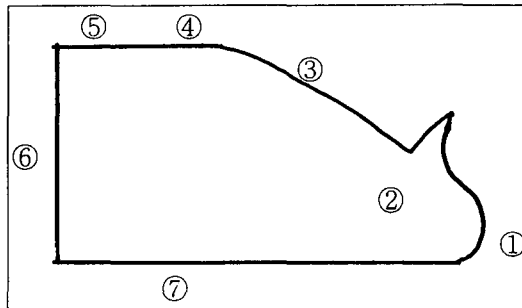
셋째는 ‘言語資料提供者’(informant)의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언어자료제공자의 자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언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실험자는 조사 대상이 되는 언어의 모국어 화자이

어야 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실험 수행자의 언어에 대하여 사전 지식이 없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선어의 발음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는 사람은 영어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한 朝鮮語母國語話者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1.2 音聲學分析 방법

한국어 발음에 대한 설명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소리에 대한 규명은 조음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구강(oral cavity) 내부에 있는 대표적인 조음 위치에 번호를 매기고 이들 위치가 한국어의 소리를 생성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음성적 분석을 위하여 제시된 조음 위치의 제시를 다음 그림을 통하여 보이기로 하겠다.

(3)



위에 예시된 그림에서 각 번호는 다음에 제시된 설명을 대표한다. 이 예시된 그림에서 혀가 움직여 번호로 정해진 위치 중 한 부분에 혀의 일부가 닿게 되면 그것은 실선을 해당 부분에 연결하여 보여 주었다.

(4) ① 입술이 서로 닿아 있는 모습이다.

1)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영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② 치아를 가리킨다.
- ③ 치아 바로 뒤의 위치인 치경 부분이다.
- ④ 입천장이라고 하며, 경구개라고 한다.
- ⑤ 성문에 가까운 부위로서 연구개라고 한다.
- ⑥ 성문 부위이며 직선은 이 부분이 닫혀 있음을 의미한다.
- ⑦ 구강의 아래쪽으로서 주로 혀가 있는 부분이다.

1.1.3 子音의 대하여

자음에 대한 설명은 韓國語子音圖表(phonetic table of Korean consonants)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다. 도표에서 좌측에 제시된 용어들은 자음이 생성되는데 적용되는 조음위치(place of articulation)를 가리키며, 제일 위쪽에 제시된 용어들은 조음방법(manner of articulation)과 연관되어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기존 음성학의 방법과 조금 다르게 조음방법을 가리키는 부분에 지속성(continuant) 자질이 강조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다른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재분류되어 있다. 재분류에 이용된 기준 자질들은 혀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 위치와 혀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²⁾

-
- ① labial(순음)
 - ② dental(치음)
 - ③ pre-palatal(치경음)
 - ④ palatal(구개음)
 - ⑤ velar(연구개음)
 - ⑥ glottal(후음)
 - ⑦ tongue(설음)

2) i. 조음방법

Stop(폐쇄음), Aspirate(기식음), Nasal(비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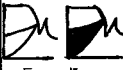













Continuant(지속성음) ⇒ Central(설중심음), Lateral(설측음), Flap or Trill(설탄음)

ii. 조음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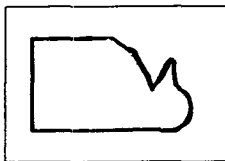
Labial(순음), Dental(치음), Dental Labial(순치음), Pre-palatal(치경음), Blade-Palatal(구개음)

Velar(연구개음), Glottal(후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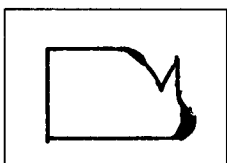
(5)

	STOP	ASPIRATE	COMBINATION OF STOP & CONTINUANT NASAL	CONTINUANT		
				CENTRAL	LATERAL	FLAP OR TRILL
Labial	 ㅂ ㅃ	 ㅍ	 ㅁ	 ㅅ		
Dental	 ㄷ ㄸ	 ㅌ	 ㄴ & Initial ㄹ		 Final ㄹ	 Medial ㄹ
Dental Labial						
Pre-Dental				 ㅅ ㅆ		
Blade-Palatal	 ㅈ ㅉ	 ㅊ	 ㄴ			
Velar	 ㄱ ㄲ	 ㅋ	 ㅇ			
Glottal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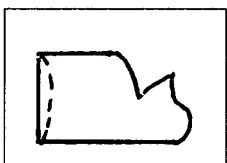
소리에 대한 설명은 도표의 좌측으로부터 시작하며, 위부터 아래로 소리의 구성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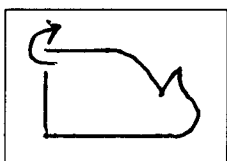
‘ㅂ’을 가리키는 그림이며, 영어의 ‘p’처럼 무성음 (voiceless sound)으로 분류하였다. 입술에 해당하는 ‘㉠’의 위치는 닫혀 있음을 가리킨다는 의미이다. 외국인의 경우 이 소리를 영어의 ‘p’가 ‘pin’에서처럼 단어 제일 앞에 올 때 나는 소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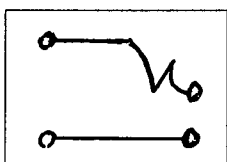
‘ㅂ’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ㅃ’와 같다. ‘ㅂ’과의 차이점은 입술을 가리키는 ① 부분이 상당한 압력을 받는다는 의미로 ‘ㅂ’의 그림과 달리 진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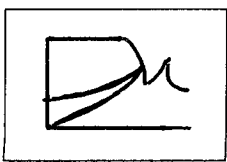
‘ㅍ’은 후음에 해당되는 ‘h’ 성분이 부가된다는 면에서 ‘ㅂ’과 구분되었다. 후음의 첨가는 (3)과 (4)에서 제시된 목구멍 부분이 점선처럼 굽어진 모양으로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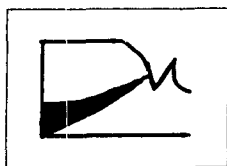
‘ㅍ’은 입술 부분이 닫혀있는 것과 소리를 만드는 바람의 일부가 구강으로부터 바로 위쪽에 위치한 비강으로 흐르는 모양을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비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후음 부분 위쪽을 열어서 표시한 것은 구강과 비강이 연결된 부위가 바로 입안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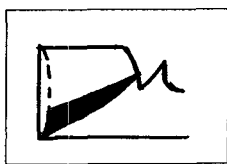
‘화’는 ‘호’와 ‘야’가 합쳐진 소리로 인식하였으며 영어의 ‘wh’와 유사한 소리로 설명하였다. 다만 ‘화’와 영어의 소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는데, 한국어 예에서는 ‘w’에 해당하는 소리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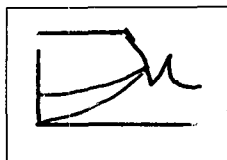
‘ㄷ’은 혀의 끝부분이 윗니에 닿아서 만들어지는 소리로 규정하였다. 또한 ‘ㄷ’의 소리는 비록 글자 모양은 달라도 ‘낫’처럼 ‘ㅅ’이 음절 끝에 올 때도 발음된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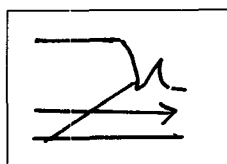
‘ㄷ’은 ‘ㄷ’과 유사하게 발음된다고 보았지만, 다만 혀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점이 특별한 요소라고 보아서 혀를 진하게 표시하여 혀에 첨가되는 힘을 나타냈다.



‘ㅌ’은 ‘ㄷ’과 같은 발음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혀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h’ 특성이 가미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혀는 검게 칠해지고, 후음 부분에는 굵은 점선이 첨가된다.



‘ㄴ’과 어두에 오는 ‘ㄹ’은 동일한 모양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비음의 경우에는 비강으로 바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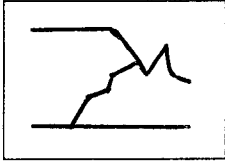


‘ㄹ’의 표기 중에서 어말에 오는(받침이 되는) 것을 달리 표시하였는데, 혀가 윗니에 닿는 것은 어두의 ‘ㄹ’과 동일하지만, 혀의 양 측면으로 바람이 계속하여 나온다는 의미에서 화살표를 첨가하는 것이 차이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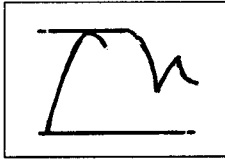
라고 할 수 있다.)³⁾

3) 한국어의 어말 설측음과 영어의 어말 설측음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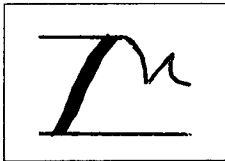
- ㄱ. 영어에서는 혀 끝부분(설단 tongue tip)이 치경 부분에 닿지만, 한국어에서는 혀 끝부분이 윗니 바로 뒤에 닿아서 소리가 생성된다.
- ㄴ. 영어의 어말 ‘L’은 한국어 어말 ‘ㄹ’과 달리 소리의 끌림 현상이 나타난다.
- ㄷ. 영어의 ‘L’은 성대의 떨림 현상을 수반하지만, 한국어에서 어말 ‘ㄹ’은 떨림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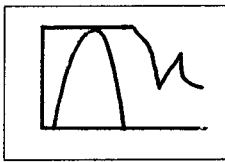
어중간 ‘ㄹ’이 어두와 어말 ‘ㄹ’과 다른 점은 혀의 떨림인 ‘진동음(trill)’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림에서는 혀의 이런 움직임을 표시하게 위하여 혀에 해당하는 선을 약간 꾸불꾸불하게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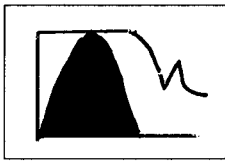
‘ㄷ’은 순치음(Dental Labial)과 치경음(Pre-Palatal) 사이에서 발음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5)의 도표에서는 두 조음위치 사이에 표기하였다.



‘ㅌ’은 모든 것이 ‘ㄷ’과 같지만, 혀에 대한 긴장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혀 부분을 진한 실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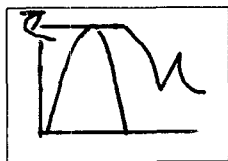
‘ㅈ’은 치경 위치에서 나는 소리로서 영어의 ‘z’와는 매우 다른 위치에서 소리가 생성된다. 영어의 ‘z’는 구개음(Blade-Palatal)에서 발음되지만, 한국어의 ‘ㅈ’은 그 것보다는 뒤에서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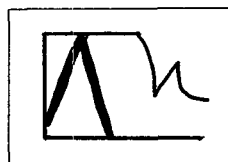
‘ㅊ’은 ‘ㅈ’과 동일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혀에 대한 긴장도를 진한 색으로 표시하는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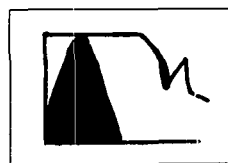
‘츠’은 ‘ㅈ’과 동일한 위치를 보이면서 ‘h’의 성격이 가미된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후음 부분에 굵은 점선을 첨가한다.



최근의 음성학에서와 달리 『鮮英文法』에서는 비음 ‘ㄴ’이 ‘냐’의 환경에서 ‘ㅈ’과 동일한 조음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설명은 물론 영어에 대한 자음도표에도 제시되고 있는데, 영어의 ‘ñ’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 음성학에서는 이 소리들을 가리켜 ‘구개음화된 소리(palatalized sound)’라고 일컫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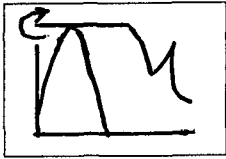
‘ㄱ’의 특징은 입천장의 가장 안 쪽인 연구개(velar)와 ‘혀의 뒷부분(tongue back)’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ㄷ’은 ‘ㄱ’과 동일한 위치에서 발음되지만, 혀의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진한 색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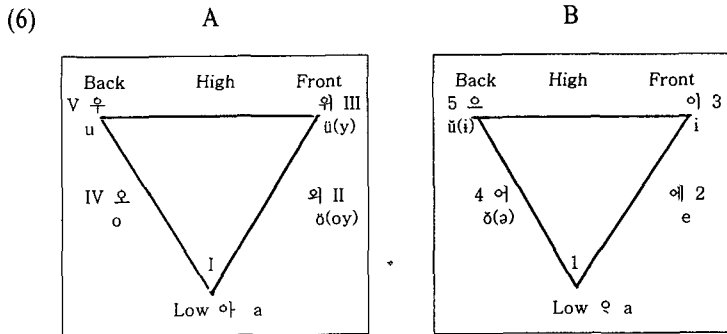
‘ㅋ’은 ‘ㄱ’과 동일하고, 후음의 성질인 기식음(aspirate) ‘h’가 첨가된다.



‘o’은 ‘ㄱ’과 동일한 조음위치를 보이지만, 구강에서 비강으로 바람이 이동하는 화살표가 따로 있다는 측면에서 발음상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1.1.4 母音에 대하여

한국어의 모음에 대한 설명은 기존 음성학의 접근 방식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전통적으로 음성학 관련 저서에서는 하나의 모음도표를 만들어 모음의 발음들을 분포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에 반하여 여기서는 모음도표를 圓盾性(Rounding)과 非圓盾性(Unrounding)으로 나누었으며, 각 도표에 해당되는 소리들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⁴⁾ 다음 (6)에 나오는 그림 중 A는 원순성을 보이는 모음을 모은 것이며, B는 비원순성의 모음들을 모아서 그림으로 보인 것이다.⁵⁾



- 4) ‘원순성’이란 입 안에 있는 특정 부분을 둥글게 만드는 형태를 가리킨다. 구강 내부에서 둥글게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셋으로 분류될 수 있다.
 ㄱ. 입술의 위아래를 둥글게 모을 수 있다.
 ㄴ. 혀의 끝 부분과 경구개 부분을 둥글게 만들 수 있다.
 ㄷ.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를 합쳐 둥글게 만들 수 있다.
- 5) 『鮮英文法』에서는 A와 B가 서로 뒤바뀌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鮮英文法』에서 잘못 표기한 것을 바로 잡아서 설명하였다. 이점 잘 명심하기 바란다.

위에 제시된 모음들 이외에도 한 개의 모음을 더 언급하였는데, ‘ㅞ’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들이다. 비록 모음 도표 A, B에서는 10개의 모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鮮英文法』의 저자는 11개의 모음을 합쳐서 세종대왕 시대에 제안된 모음 수와 일치시키고 있다. 저자는 훈민정음 ‘字母音體系(alphabet system)’를 따라 11개의 모음을 제시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모음들 중 ‘이중모음(diphthong)’과 유사한 모음으로 인식되는 모음이 있음도 아울러 언급하였다. ‘위’의 경위 종종 ‘우’가 빠진 채 ‘이’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비단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발음할 때도 많은 경우에 ‘이’로 나타나기도 함을 예를 들면서 내부적으로 분리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⁶⁾

2. 朝鮮語音聲學과 現代音聲學 비교

지금까지 『鮮英文法』에서 제시된 한국어에 대한 음성학 분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설명 방법의 기본 골격은 서양 음성학의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많은 부분에 차이점이 나타나 있음을 찾아 낼 수 있다. 『鮮英文法』이 개정된 시기가 한국의 사정을 볼 때 꽤 오래 전이라고 하지만, 이 책이 개정될 당시 1914년에는 이미 현대 음성학의 기본 틀이 완성된 시기로서 그 당시에 정립된 음성학의 방법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鮮英文法』에 제시된 음성학의 방식은 당시 세계에서 통용되던 음성학 방법에 기본적 토대를 두고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6) 한국어의 ‘위’의 발음이 변형될 경우에 발음 결과가 ‘이’로만 나오는 것은 ‘위’에서 앞부분인 ‘우’가 독립적인 모음이 아니라 영어의 ‘wi’에서 ‘w’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에는 ‘w’에 연관된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독립적으로 발음하는 음성변형이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2.1 發音位置를 보이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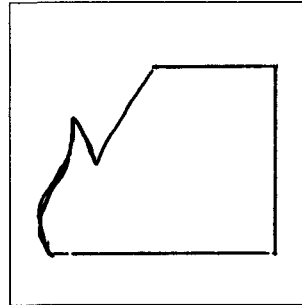
이미 위에서 제시하였지만 소리를 나타내는 조음위치에 대한 표시가 『鮮英文法』에서는 (3)처럼 간략화 되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한 부분이다. 음성학 교재의 대부분은 발음 위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주로 사람의 신체 중에서 음성 생성과 관련된 부위를 실제로 그려서 보이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는 『鮮英文法』의 음성학 설명에서는 이들 신체 기관들이 간단한 그림으로 생략되어 표시되고 있다.

(7) i.

[그림 11]



ii.



2.2 音聲糾明 基準 配置

이 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관련된 기준들의 배치가 기존의 음성학에서의 배치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현대 음성학 교재에서는 조음위치는 주로 도표의 가장 윗부분에 배열되어 있으며, 조음방법이 도표 왼 편에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지만, 『鮮英文法』에서는 (5)처럼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연관된 용어들의 배치가 현대 음성학의 나열 방식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런 배치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은 조음위치를 도표의 왼편에 위에서 아래로 배치함으로써 신체 구조상 음성 기관이 점점 아래

쪽으로 향하여 배열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만일 현대음성학에서와 같이 조음위치를 도표 위쪽에 나열하게 되면 조음위치와 관련된 음성 기관들이 마치 수평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조음위치의 용어들을 배열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조음위치와 관련이 있는 음성기관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상은 (7i)에 잘 예시되어 있다.)

2.3 音聲學用語의 차이

먼저 조음위치에 관련된 용어를 보면 ‘Pre-Palatal’과 ‘Blade-Palatal’이 현대음성학의 조음위치 용어들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음성학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鮮英文法』의 용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8) 현대음성학 용어		『鮮英文法』의 용어
Labial	입술	Labial
Labio-dental	입술과 윗니	Dental Labial
Interdental	윗니와 아랫니 사이	Dental(영어의 경우 ‘th’) ⁸⁾
Alveolar	윗니 바로 뒤	Dental

7) 음성기관이 점차 아래로 향하면서 ‘ㄱ’ 모양을 유지하는 것은 영장류에서 인간과 유인원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음성 기관이 굽어지고 점점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발음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ㄱ. 혀가 구강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구강의 조음기관과 혀가 다양한 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ㄴ. 조음기관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발음의 에너지 원천인 바람이 폐에서 입 밖으로 움직이는 기본적인 호흡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대는 바람이 나오는 폐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고, 이 부위와 관련된 성문(glottal) 부분이 구강에서 제일 안쪽에 위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8) 현대음성학으로 영어를 설명할 때 ‘th’는 치아 사이에 혀를 넣고 발음하는 소리이며 음성학 용어로는 치간음이라고 불린다. 영어로는 ‘interdental’ 또는 ‘dental’로 분류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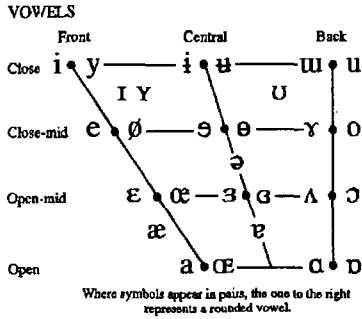
Alveo-palatal (Palato-alveolar)	경구개 시작 부분	Pre-Palatal
Palatal	경구개 정점	Blade-Palatal
Velar	연구개 부분	Velar
Glottal	성문 근처	Glottal

조음방법에 사용된 용어 중에서 ‘ASPIRATE’와 ‘CONTINUANT’는 현대음성학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음운론에서 辨別的資質(distinctive feature)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음성학에서 소리를 분류하는 중심 용어로 사용되기 보다는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음운규칙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ASPIRATE’는 한국어의 경우에는 의미의 차이의 기준이 되는 음소(phoneme)의 분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음성적인 차이만을 보여주는 이음(allophone)의 설명 기준으로 이용된다. ‘CONTINUANT’는 현대음성학에서 ‘APPROXIMANT’로 대체되어 설명되고 있으며, 이 기준은 ‘LATERAL’과 ‘FLAP OR TRILL’ 그리고 ‘SEMIVOWEL(반모음 또는 반자음)’에 속하는 ‘w, y’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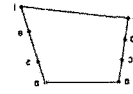
2.4 모음 도표

모음의 분류의 특이성은 우선 현대음성학의 토대가 된 기본적 모음도표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Daniel Jones가 基本母音(Cardinal Vowels)을 제시한 이후 대부분의 음성학자들은 모음을 분류하고 설명할 적에 기본모음 도표에 기초를 두고 모음 발음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그림은 기본모음 도표와 그에 바탕을 두고 배치한 한국어의 모음 분포를 도표로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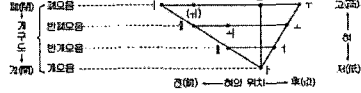
(9)



□(가) 모음 사각도



□(나) 국어 모음 삼각도



『鮮英文法』에 제시된 모음도표(6)을 참조)의 그림은 기본모음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훈민정음에 제시된 모음을 중심으로 하여 저자가 독자적으로 소리를 원순성에 의하여 별도의 모음도표를 삼각도를 바탕으로 모음을 분류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기본모음에 따라 재편성하면 (9)에서처럼 한국어 기본모음도표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9)에 예시된 기본모음도표와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만든 한국어 모음도표에는 원순성 모음과 비원순성 모음이 한 그림에 동시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원순성 모음과 비원순성 모음을 별도의 모음도표를 만들어 따로 제시하는 대신에 동일한 조음 위치를 소유한 모음들을 동일한 자리에 두고 이들 모음들을 원순모음과 비원순모음으로 나누어 놓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일한 자리에 위치한 모음은 두 개 이상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왼쪽 모음은 비원순모음, 오른쪽 모음은 원순모음으로 배열하면 된다. 이처럼 기본모음도표를 중심으로 모음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있는 현대음성학에서는 원순성 여부에 따라서 모음을 구별할 뿐 별도의 모음도표를 따로 두지 않으면서 모음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5 音聲特殊技機能의 차이점

한국어 자음도표에서 소리의 첨가 특성으로 성대가 진동하는 상황과 구강 내부 특정 부분의 긴장도가 눈에 띄게 높은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성대의 진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위하여 그림 (3), (7ii)에서 아래 부분(㉗에 해당됨)을 진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음성학을 생각하면 상당히 특이한 설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7i)처럼 음성기관을 신체의 실질적 그림으로 토대로 소리의 발음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에서는 유성음이면 성대가 관련된 부위를 물결표시()로 나타내고, 무성음이면 ()으로 표시한다.

둘째로 긴장도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긴장도가 높은 부분을 진한 선이나 까맣게 색칠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현대음성학에서는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혀를 까맣게 칠해서 긴장성을 표시하고 있는데, 현대음성학에서는 ‘ㅅ, ㅆ, ㅈ’의 경음(된소리)과 ‘ㅍ, ㅌ, ㅊ, ㅋ’의 격음(거센소리)이 긴장도가 높아진 것은 그룹별로 긴장도가 높이지는 원인이 되는 요소를 특수표기 방식으로 첨가하여 다른 자음과의 차이점을 보여 주었다. 경음은 성문에 압력이 첨가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소리에 ‘^h’를 덧붙여서 ‘p^h’처럼 표기하고, 격음은 ‘^h’를 ‘p^h’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셋째는 성문 부분에 굵은 점선을 첨가하여 ‘ㅍ, ㅌ, ㅊ, ㅋ’과 같은 거센소리들을 표기하였다는 사실이다. 현대음성학에 따르면 거센소리는 자음을 만들기 위한 바람 에너지의 상승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문에 점선을 표시하는

- 9) 현대음성학 및 음운론에 의하면 ‘aspirate(기식음)’와 ‘tense(긴장음)’은 자음을 분류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鮮英文法』에서는 이들 자질들이 자음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별로 언급하고 있지 못하다. 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면 ‘+’로 표시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로 표시한다.

	보통소리 ㅂ, ㄷ, ㅈ, ㄱ	거센소리(격음) ㅍ, ㅌ, ㅊ, ㅋ	된소리(경음) ㅅ, ㅆ, ㅈ	보통소리 (유성음 사이)
aspirate(기식성)	+	+	-	-
tense(긴장성)	-	+	+	-

것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한다. 이미 위에서 말 했듯이 이런 에너지의 증가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은 ‘p^h’처럼 ‘h’를 윗첨자로 하여 자음을 설명하고 있다.¹⁰⁾

III. 맺으며

지금까지 『鮮英文法』에 제시된 음성학적인 설명을 현대음성학의 방식과 비교, 검토하였다.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소리의 분류 방식은 서양에서 주로 사용하던 음성학에서의 방법을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분류 체계를 따르면서 각 소리에 대한 규명은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토대로 하여 한국어 발음을 분류하고 설명하였다.

둘째는 비록 기존 음성학 방법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적용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설명하기에 앞서 어떤 이유로 독자적으로 음성학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현대음성학의 방식과 비교하면서 추측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당시의 음성학 교재를 중심으로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헌

- 김형엽 외. 『생성문법에서의 음운론』. 한신문화사. 1994.
 김형엽, 이현구. 『영어학습자를 위한 영어 발음지도』. 경진문화사. 2005.
 허 용. 『국어음운론』. 정음사. 1998.
 Ladefoged, P. A Course in Phonetics. Heinle & Heinle. 2001.
 Underwood, H.Grant. 『韓英文法』. Kelly & Walsh, LTD., Yokohama. 1890.
 Underwood, H.Horton. 『鮮英文法』. Kelly & Walsh, LTD. Yokohama. 1914.

10) ㅍ p^h ㅌ t^h ㅊ c^h ㅋ k^h

[Abstract]

The Study of Phonetic Research Methodology in Korean English Grammar

Hyoung-youb Kim
(Korea University)

It hasn't been long time since English language was introduced in Korea.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 importance of the way of using English properly started to be recognized as Chosun (former country in Korean peninsula) began to conclude a treaty with foreign countries. A lot of Koreans could learn the western culture by the acquired knowledge of English. One of the main factors opening the secluded nation to the world was the member of missionary from outside of Korea. As the number of missionaries increased those who already came to Korea found the necessity of wiring a sort of guidebook of Korean language for the newly dispatched missionaries. The book 『Korean English Grammar』(written by Horace Grant Underwood in 1890), was the first one that linguistically compared the part of speech and the clausal structures of Korean and English. The revised one of the same book was written by the son, Horace Horton Underwood, in 1914. The revised one newly included the phonetic aspect of Korean language. In this paper the phonetic part of the book will be considered carefully in order to find how recent phonetic methodology has been applied to account for the Korean phonetic features.

접 수 일 : 2005년 4월 26일

심사기간 : 2005년 4월 29일~5월 20일

재 심 사 : 2005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5년 6월 4일(편집위원회의)